

새만금 성공적 개발 위해 '맞손'

전북대-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4차 산업 등 주력사업... 전문 인력 양성·공동연구 위한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7일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양충모 청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한 선도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 등 새만금 주력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연구력을 기반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새만금개발청-전북대학교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 MOU 체결

일시 : 2021. 3. 17(수) 장소 : 4층 대강당

위한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

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 2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을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2조 원대 데이터센터·수소연료전지사업 유치, 수전해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수상태양광과 2.6GW 재생에너지 사업 등 핵심 선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이종희 교수팀이 친환경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등 이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어 새만금 지역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인재평생교육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선정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 이하 진흥원)은 교육부 주관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개 분야에 선정돼 총 국비 6,6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진흥원은 올해 '광역 문해교육 지원'과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광역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선정돼 해마다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왔다.

올해는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시범운영 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5,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교육 수요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해교육 학습 현장에 알맞은 맞춤형 교수-학습 교재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방문형, 학습꾸러미, 비대면(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권 진흥원장은 "이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도 문해교육 학습 현장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며, 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나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추진 계획 마련... 사전심의-중간점검-사후관리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나선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제정된 '전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도교육청 정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의미한다.

다.

우선 사전심의 단계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타당성·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의 적정성, 결과의 공개·평가 및 활용상황 등을 심의한다.

또 연구용역 시행 중에는 1회 이상 중간 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또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

연구보고서)에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용역 관리 추진 계획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적용된다. 다만, 국가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심의, 중간점검,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대학 및 지역기업 등 연구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이공계열 미취업 학·석·박사 졸업생을 청년기술전문인력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직접 채용해 일정 기간 교육 후 기술 보유 실험실과 지역 수요기업에 6개월 또는 8개월 등

안 파견 근무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기업 등 연구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을 통해 원광대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1년 지원후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학사 32명, 석·박사 4명 규모

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는 4월 중 청년기술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병민 산학협력단장은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정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및 기업현장 파견 근무를 통해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취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 학생 추념위원 앞장

내달 16일 추념식... 도내 중·고생 참여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생 추념위원들이 앞장선다.

17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4월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아이들의 얼굴'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5일까지 희생자 추념행사에 참여할 학생추념위원을 모집했다.

추념위원들은 도내 중·고등학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행사 기획부터 진행, 영상 제작, 지역 순례의 길(안산 단원고·지역 전기관) 방문, 기억정원 만들기, 추념 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게 된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인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추념식은 오는 4월 16일 저녁 7시 도교육청 광장(우천시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생명존중,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며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며 사회안전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졸업 축하 격려금 전달식 진행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IST36.5' 행사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정보과학기술연구실(IST Lab., Information Sciences & Technology Lab., 지도교수 정동원)에서는 IST36.5 행사의 일환으로 졸업 축하 격려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IST36.5 행사는 졸업생들이 작은 성의를 모아 후배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축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올해 IST36.5 행사는 최근 졸업한 졸업생 일부가 소정의 상품권을 마련하여 후배의 졸업을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 행사는 졸업 선배들을 대신하여 지도교수가 상품권을 전달하는 단출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구실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병행했다.

졸업생들은 "건강하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무엇보다 연구실에서의 힘든 과정을 멋지게 마무리한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길 바란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도교수인 정동원 교수는 "후배들을 생각하는 졸업생들의 따뜻한 사려 깊은 마음에 늘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졸업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체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